

## 중한 문학 번역에 나타난 번역투 문장

김진아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중과 교수

### 1. 문학 번역은 가독성이 장땡인가?

2011년 11월 스티브 잡스의 한글판 자서전을 둘러싸고 벌어진 오역 소동은 그의 죽음만큼이나 우리를 씩씩하게 만들었다. 논란의 핵이었던 번역가 이덕하 씨와 노승영 씨는 제임스 웨슬리 롤스의 책 《세상의 종말에서 살아남는 법》의 원서 1장을 각기 번역해 네이버 카페에 공개하였다. 다음은 2011년 12월 3일 자주민보에 실린 원문과 두 사람의 번역 그리고 이덕하 씨 평론의 일부분을 발췌해 정리했다.

Then you realize that with nighttime lows in the single digits and daytime highs in the twenties, if the power isn't restored by the time you get home from work, it will be very cold in the house.

노승영 번역: 한낮에도 기온이 영하에 머물러 있다. 퇴근해서 집에 돌아갈 때까지 전력이 복구되지 않으면 무척 추운 밤을 보내야 한다.

이덕하 번역: 그때 요즘에는 밤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고 낮 최고 기온도 영하권이기 때문에 만약 직장에

서 집에 돌아올 무렵까지도 전력이 복구되지 않으면  
집안이 아주 춥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에 대해 이덕하 씨는 노승영 씨의 번역이 훨씬 읽기 편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편리함을 위해 노승영 씨가 문장을 둘로 쪼개는 바람에 원문의 문체가 희생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덕하 씨는 자신은 번역에는 가독성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기에 문장을 쪼개서 번역하거나 “with nighttime lows in the single digits”를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아주 추운 날씨”를 “기온이 영하권”이라고 의미를 축약하거나 “realize”의 의미를 생략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다른 예를 보자.

You hear what must be a truck backfiring far in the distance. At least somebody got theirs started.

노승영 번역: 트럭이 부르릉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린다. 누군가 시동 거는 데 성공했나 보군.

이덕하 번역: 트럭의 역화(backfiring) 소리 같은 것이 멀리서 들린다. 그 차는 시동이라도 걸렸다.

위의 두 번역에서 키워드는 “backfiring”을 어떻게 번역했느냐에 있다. 노승영 씨는 “부르릉거리는 소리”로, 이덕하 씨는 “역화(backfiring)”라고 번역했다. 역화, 즉 백파이어는 한자로 逆火로 쓰고 그 의미는 내연 기관에서 실린더로부터 흡기관이나 기화기 따위로 불꽃이 거꾸로 흐르는 현상을 뜻한다. backfiring을 역화라고 번역한 이덕하 씨의 변(辯)을 들어 보면 역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차에 이상이 생겼다는 뜻이며, 이 단락에서는 정전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사사건건 문제가 발생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으므로 이를 단순히 “부르릉거리는 소리”로 번역을 한다면 독자들은 트럭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노

승영 씨가 이런 정보를 하찮게 여겨 생략한 듯하지만 이덕하 본인의 생각은 다르다고 했다. 첫 번째 예에서는 원문을 조깅으로써 문체가 희생되었다는 주장과 독자의 가독성을 고려해서 번역해야 한다는 주장 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두 번째 예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독성을 고려한 번역과 정확성을 고려한 번역 간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 두 번역에 대한 옳고 그름, 좋고 나쁨에 대한 판단은 독자의 몫이다.

번역에서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가독성과 정확성은 번역가가 번역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견해를 달리한다. 발터 베나민(Walter Benjamin)은 《번역자의 임무(The Task of the Translator)》(1955)에서 “문학 창작과 달리 번역의 자리는 언어의 숲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서서 숲이 무성한 산마루를 바라보고 있는 곳에 있다. 번역은 숲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숲 속을 향해 외친다. 메아리가 울려 퍼져 낯선 언어로 되어 있는 작품을 자국어로 공명하게 해 줄, 바로 그 표적의 한 점을 겨냥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베나민의 주장은 창작의 자리가 숲 한가운데라면 번역의 자리는 숲 바깥쪽이며, 번역자는 숲에 메아리가 울려 퍼지도록, 즉 이국어로 되어 있는 작품을 독자가 공감하고 더 나아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자국어로의 정확한 번역, 즉 외침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칼 러빗은 《뒤죽박죽되고 형편없는 은유: 텍스트를 텍스트의 번역으로 간주함(Mixed and Misbegotten Metaphors: Text as Translation as Text)》(1987)에서 “번역은 창조가 아니라, 언어적 능력과 지식으로 부족한 상상력을 보충해야 하는 기예다. 번역의 기지와 한계는 하나의 언어적 창작물에 새겨진 휘발성 관념을 다른 언어로 전유하는 것이다.”<sup>1)</sup>라고 주장하였다. 러빗은 번역을 창작이 아닌 기예로, 창작물에 새겨진

---

1) 발터 베나민과 칼 러빗의 인용문은 김선형(2008), 문학번역의 이론과 실제 그리고 평가-번역자의 입장에서, 《안과 밖》 영미문학연구, 영미문학 연구회, 66쪽을 참조함.

관념을 다른 언어로 전유한다고 여겨 번역된 문학 텍스트를 원전의 뉘앙스로 이해했다.

이제 가독성과 정확성에 관한 담론을 중국어 문학 번역으로 옮겨 보자. 위다푸(郁達夫)의 작품 《沈淪》은 국내에서 《침륜》 혹은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총 4종의 번역서가 출간되었는데<sup>2)</sup> 그중 “半痕新月, 斜挂在天角上, 却似仙女的蛾眉, 未加翠黛的樣子。”라는 문장의 번역은 아래와 같다.

전인초 번역: 반쯤 이지러진 초승달이 서쪽 하늘 모퉁이에 걸려 있었는데 마치 아직 취대(翠黛) [눈썹 그리는 데 쓰는 푸른 빛의 먹: 역주] 를 칠하지 않은 선녀의 이미(蛾眉) 같았다.

강계철 번역: 반쯤 남은 초승달은 서쪽 하늘 끝에 비스듬히 걸려 있었는데 아직 화장을 하지 않은 선녀의 눈썹 같았다.

풀무원집부 번역: 조각 난 신월은 서쪽 하늘가에 걸려 어찌면 선녀의 눈썹이 화장을 하지 않는 것 같았다.

이육연 번역: 서쪽 모퉁이에 걸려 있는 초승달은 화장을 하지 않은 선녀의 눈썹 같았다.

위의 번역문에서 키워드는 달과 눈썹인데, 달은 서쪽에 걸린, 반쯤 이지러진 초승달이고, 눈썹은 아리따운 선녀의 눈썹인데 아직 눈썹을 그리는 데 사용되는 푸른빛을 먹인 취대로 눈썹을 그려 넣지 않은 눈썹이다. 결국 위다푸가 표현하고 싶었던 서쪽 하늘에 이지러져 걸려 있는 초승달은 꼭 선녀의 눈썹 같은데, 그 초승달이 희미하게 보여 마치 눈썹 화장을 미처 하지 못한 듯 보인다는 것이었다. 전인초 번역은 역주를 달면서까지 정확하게 그 뜻을 독자에게 전달하여 독자가 행간의 숨은 뜻을 읽어 내도록 하고 있지만 가독성은 기타 번역에 비해 우수

2) ①전인초 역(1989), 중앙일보사. ②강계철 역(1999),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③풀무원집부 역(2003), 풀무. ④이육연 역(2010), 창비.

하지 않다. 풀무편집부 번역은 마치 ‘초승달이 서쪽 하늘가에 걸려 있기 때문에 화장을 하지 않은 선녀의 눈썹 같다.’라고 오독할 수 있는 여지가 내포되어 있다. 즉 작가가 중점을 두고 표현하고자 했던 초승달보다 오히려 번역자는 선녀의 눈썹을 부각시켜 그 중심점이 초승달로 이동되어 독자는 원래 작가의 의도에서 탈색된 감을 느끼게 된다.

원문에 담긴 정보를 빼놓지 않으려고 번역의 정확성을 기하다 보면 종종 번역투의 문장이 포함된 번역을 하거나 오독의 여지를 남긴다고 하지만 이에 대해 우리는 숙고할 필요가 있다. 번역투에 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번역문에 존재하는 원문 외국어 구조의 전이 흔적”, “원문 구조에 치우친 직역의 결과로 번역문에 나타나는 상투적이고 어색한 외국어식 표현”, “외국어를 국어로 옮길 때 국어에 없는 외국어 문체를 그대로 옮겨 어색하고 투박하며, 매끄럽지 않은 말과 글의 문체”, “직역으로 인한 번역투 문장은 상상력과 표현력을 제약하여 오역이 생기도록 하며, 가독성을 저해한다.” 등등이 있다. 번역투 문장은 한마디로 원문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니 번역문에 상투적이고 어색한 외국어식 표현이 섞이게 되어 말과 글이 매끄럽지 않고 투박해지며 결국 오역을 양산하고 가독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그러나 전인초 번역과 풀무편집부 번역을 비교했을 때 풀무편집부 번역이 전인초 번역보다 매끄러운 데 반해 오히려 오독의 소지가 더 많지 않은가? 오히려 기타 매끄러운 번역보다 전인초의 번역이 독자에게 ‘왜 초승달을 눈썹 화장을 하지 않은 선녀의 눈썹 같다고 표현했을까?’ 하고 한 번쯤 되새겨 볼 만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표현이지 않은가?

따라서 행간에 숨은 뜻을 정확히 읽어 내는 정확성이야말로 러비가 말한 “번역이란 언어적 능력과 지식으로 부족한 상상력을 보충해야 하는 기예”라고 한다면, 이를 통해 최소한의 의미 손실로 가독성이 풍부한 문장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베나민이 얘기한 “낮선 언어로 되어 있는 작품을 자국어로 공명하게 해 줄 바로 그 표적의 한 점을 겨냥하

는” 셈이 될 터이다. 때문에 원문에 담긴 정보를 빼놓지 않으려는, 번역의 정확성을 기하려는 의도 이전에 작가가 의도한 행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읽어 내는 상상력이 오히려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 상상력은 옳이 독자의 몫일까?

편집자들은 가끔 ‘원판 불변의 법칙’을 농담처럼 이야기한다. 번역 작품이 형편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편집자라 해도 이 작품을 손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번역을 요하는 작품의 최초 독자는 번역가이다. 작품은 번역가 다음 편집자, 편집자 다음 독자의 손으로 유전된다. 따라서 정확성이 결여된 매끄럽기만 한 번역문을 읽고 행간의 숨은 뜻을 상상해 낼 수 있는 독자란 어지간히 눈치가 빠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학 번역을 비문학 번역과 이분화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문학 번역은 비문학 번역보다 원전의 모호성과 단어의 다양한 변형, 번역가라는 변수로 인해 어휘나 문장의 일대일 대응 번역보다 제2의 창작에 가깝게 해석된다. 게다가 가독성을 지향하므로 문장과 문맥의 자연스러움을 추구한다. 그렇다고 해서 가독성을 빌미로 작가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여 독자의 상상력을 이끌어 내는 정확한 번역을 표현이 어색하다는 이유로 생략하거나 누락시켜도 된다는 면죄부를 쥐어줄 수는 없다. 오히려 의역으로 인해 원전의 의미가 훼손되는 경우도 많다.

문학 번역도 정확해야 한다. 문학 번역에서 지향해야 하는 정확성이란 작가의 숨은 의도를 번역가가 찾아내 번역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도를 극대화하고 상상력을 최고조로 끌어내는 것이다.

## 2. 번역가가 처한 눈물겨운 현실

이처럼 번역투의 문장을 양산하는 책임도 번역가에게 있고, 정확한 번역을 통해 독자의 상상력을 극대화시키는 책임도 번역가에게 있고,

매끄럽게 짝짝 읽히는 가독성 만점의 번역문을 만들어 내는 책임도 번역가에게 있고, 또한 의도된 바가 아닌 오역의 책임도 번역가에게 있다. 이렇듯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번역가가 오늘날 처한 현실은 과연 어떠한가? 번역가가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우리는 번역가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을까?

번역투의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의미는 우리 출판계가 그만큼 번역서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다. 2010년 대한출판문화협회의 2010년 납본 대행 통계 기준을 보면 2010년 발행된 신간 가운데 번역 도서가 10,771종으로 전체 발행 종수인 40,291종에서 27%를 차지하고 있다. 거의 30%에 육박하는 번역서 비중은 세계에서 번역서 비중이 가장 높은 '번역 공화국'이라는 오명에 걸맞다. 그중 일본 도서의 번역 비중이 가장 크고 중국 도서는 6위를 차지하고 있다. 2007년도에 중국 도서는 번역 비중에서 역시 6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총 350종 중에서 문학이 93종, 사회과학이 73종이었다.

한국은 2005년부터 꾸준히 300여 종의 도서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나, 세계 경제 2위로 부상한 중국은 2008년에는 급기야 800종이 넘는 우리 도서를 수입하여, 수입이 수출에 비해 3배가 넘고 있다. 아울러 2005년부터 중국의 도서 수입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2005년 최인호의 장편소설 《불새》가 창장(長江)문예출판사와 2만 달러라는, 그동안 저작권 수출 관행으로 보았을 때 파격적인 액수로 출판 계약이 체결되었고, 공지영의 작품 6편이 연달아, 2009년 3월과 2011년 1월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너를 응원할 것이다》, 2010년 1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2010년 9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2010년 12월 《즐거운 나의 집》, 《봉순이 언니》, 《고등어》, 2011년 1월 《상처 후에 오는 것들》이 출간되어 중국에서의 한국 문학 위상에 대한 새로운 지각 변동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에 수입된 우리의 작품을 번역해야 하는 중국의 번역계의 상황은 어떨까?

일단은 중국은 현재 전문 번역가라는 직업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다수의 번역자가 ‘비전문적인’ 번역가이다. 따라서 번역되어 나온 작품은 내용이 첨가되거나 삭제, 날조되기 일쑤여서 중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번역자들 간에 옥석을 가려 낼 수 있는 마땅한 감독 기구도 없고, 출판사는 오역 등에 대한 책임 회피만 일삼기에 번역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전문적으로 문학 번역을 할 만큼 전문가나 번역가의 양적인 측면에서도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로 2011년 2월 12일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중국번역협회에서 개인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한국어 번역가는 총 22명에 불과하다. 그중 대부분이 조선족으로 무려 17명에 달하며, 문학 번역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번역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문학 번역 전문가는 차치하고, 번역과 번역가의 수급 불균형의 심각성을 우리는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2008년 중국이 수입한 우리 도서가 800여 종인데 22명의 번역가가 번역을 한다고 가정하면 어림잡아 한 번역가가 40여 종을 번역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럼 번역가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1개월에 책을 한 권씩 번역한다 해도 1년이면 12권밖에 번역할 수 없으며, 초인적인 힘은 결국 절대 시간 부족으로 이어져 양질의 번역 작품을 양산하기 어렵다. 이는 다시 중국어로 재탄생된 번역문에 번역투의 문장이 다량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은 번역가와 번역 도서 간의 수급면에서도 차이가 많지만 번역가의 자질과 직업으로서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면에서도 문제가 많다. 특히 제대로 된 외국어 교육과 번역학과의 정립, 번역 인재를 배양하는 기제, 번역의 보수와 장려 정책, 번역의 표준과 법규의 완비, 번역 성과인 지식 재산권의 보호, 번역 인재 뱅크 마련 등 현안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와 같이 산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중국의 열악한 번역 환경이 실은 우리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그간 황석영, 이문열, 은희경 등 한국의 기라성 같은 작가들의 작품이 중국에 번역되어 나왔지만 제대

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얼마 전, 전 세계적으로 판권이 팔린 《엄마를 부탁해》라는 작품은 작가 신경숙이 직접 중국어 번역가를 섭외하고 번역을 부탁했다는 후문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중국어 안고 있는 열악한 번역 환경, 산적한 현안은 우리와는 동떨어진 먼 나라 이야기일까? 아니다. 우리 상황도 중국과 대동소이하다. 2006년 《마시멜로 이야기》 ‘대리 번역’ 사건에서 2011년 스티브 잡스 자서전의 번역 공방에 이르기까지, 번역과 관련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우리 번역계의 상황을 개탄하고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범사회적, 국가적인 지원을 호소하지만 이렇다 할 만한 점이 없다. 2007년 5월 17일 교육부는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에서 “동서양 고전을 번역해도 박사논문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확대하고, 해마다 번역 전문가 1천 명을 선발하여 1인당 5백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라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그 실효성이 의문이다. 교육부가 상업성과 관계없는 원전 번역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번역의 질을 제고하겠다고 작정하고 나선 마당에 필자는 왜 1년에 50억이나 되는 예산을 부질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까?

번역투의 문장을 일소하고 오역을 줄이고 번역의 위상을 확립하고, 번역가의 지위를 향상시켜 번역이 바른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한결 같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자질이 풍부한 번역가를 양성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꼽는다. 이웃 일본 번역자의 경우 제대로 된 번역서를 1권만 갖고 있어도 평생이 보장되는 상황은 1980년대 서구와 비슷했던 학문 수준을 현재는 서구를 앞지르게 하는 견인차 역할을 했으며, 아울러 일본이 학문에 있어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할 수 있는 까닭은 상업성과 무관하게 꼭 번역되어야 할 외서가 체계적으로 번역되도록 사회, 국가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육부가 내놓은 1년에 1인당 5백만 원씩 지원이란 그 어려운 고전을 번역하면서 1개월에 40만 원 조금 넘는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다. 얼마나 불합리한가? 이런 미봉책으로 고사 직전에 있는 인문학을 부활시킬 수 있으며, 과연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번역자가 양성될 수 있을까? 원점으로 돌아가 번역과 번역가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거시안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번역투의 문장과 오역으로 가득한 번역서의 바다에서 헤엄쳐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번역투 문장이라고, 오역이라고,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번역가에게 돌팔매질을 하기 위해 주워 들었던 돌을 누구에게, 어디에 던져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볼 시점이다.

### 3. 네덜란드 번역가, 번역가의 로망

쓰미 유지의 저서 《번역가와 번역가들》(2005)에서 현재 유럽 번역가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나라는 네덜란드라고 한다. 네덜란드의 번역가 수입은 공적인 문예 기금에 의해 보충되는데, 번역을 위해 개인적으로 연구의 필요성을 느껴 자료 수집이나 여행 등에 드는 경비도 장려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출간되었을 때 번역이 훌륭하고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책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번역료를 다시 받을 수 있어 네덜란드의 번역가는 이중으로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쓰미 유지는 최근 프랑스의 한 통계 조사에서 10년 전 번역가들의 수입과 현재의 수입을 비교해 보았는데 고등학교 교사의 급료가 10년 동안 두 배가 된 것에 비해 번역가의 평균 수입이 세 배가 되었다는 점은 번역가로 하여금 전문성과 긍지를 갖고 번역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정말 먼 나라 이야기다. 우리는 생계를 위해 마구잡이식 번역을 하거나, 번역가로 만들어 주겠다는 번역 업체나 대행사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제 값도 못 받고 번역을 하거나, 출판 편집자나 작가와의 친분으로 번역을 하거나, 심지어 헐값의 원고료로 조선족에게 번역을 맡기고 출판사 내부에서 함량 미달의 원고로 소설을 쓰듯 번역 원고를 손보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프로 정신을 가진 번역가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번역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

번역은 고도의 정신력을 요구하는 행위다. 특히 문학 번역은 여타 장르와 달리 번역할 때 원작자의 의도와 작품의 본래 가치를 그대로 살리면서 문체를 통해 심미감을 추구하고 대상어 국가의 문화를 이해해야 하는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때문에 번역된 작품은 번역자의 재량과 역량에 따라 원작이 얼마나 잘 달리 표현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그야말로 행간의 숨은 뜻을 정확히 읽어 낸은 물론이고, 원작에 담긴 정서까지도 고스란히 독자에게 전해 줄 번역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개혁이 필요하다. 번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우리의 출판계의 상황은 쉽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자본력이 부족하고 상업성을 최고 가치와 덕목으로 내세우는 출판사도 방향을 급선회하여 딱히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 가치 있는 번역서에 매달리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번역가는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죽어라 육만 먹을 것이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과연 누가 끊어 주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다.

우리의 문학 작품이 월경하여 중국을 넘어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시점에, 비야흐로 번역에 대한 관심이 들끓고 양질의 번역에 목말라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번역의 중요성, 번역가의 소중함에 방점을 찍어야 할 때다.